

2020년 1-2호

KIET 경제산업동향

2020. 1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중동 불안이 국제유가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2020.1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중국 4분기 6.0% 성장, 2019년 성장률 6.1% 기록

- 미국은 지난해 12월 경제지표들의 약세 속에서 4분기중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체감지표들의 약세 등 영향으로 성장률의 하락 가능성이 지배적
- 일본은 11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반면에, 유로존은 역내 생산 및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과 달리 동반 증가
- 중국은 12월 내·외수 지표들의 증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4분기중 전분기와 동일한 6.0%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연간 전체 6.1% 성장
- 연초 미·중 무역합의 등으로 엔화 등 안전통화가 상대적 약세를 보인 이후에 중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전환
- 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하락세가 지속

□ 국내경기 : 4분기 실질GDP 전기비 1.2% 성장, 2019년 성장률 2.0%

- 지난해 4분기 실질GDP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전기비 1.2% 성장(전년동기비 2.2%)
 - 2019년중 정부소비가 확대된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연간 전체로 2.0% 성장률 기록

□ 금 융 : 12월 기업대출 감소·가계대출 확대, 1월 중순(1.13~1.28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환율 상승

- 1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전월보다 감소하면서 전월과 달리 감소세로 전환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약간 더 확대

1. 해외경제

□ 미국 : 12월 및 4분기 경제지표 부진, 4분기 성장률 하향 가능성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부문간 혼조세가 나타난 반면에, 체감지표들의 약세가 지속. 지난 4분기중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체감지표들의 부진 영향으로 성장률의 하향 가능성이 지배적

- 산업생산은 12월중 제조업 생산(전월비 0.2%)의 약보합과 유틸리티 생산(-5.6%)의 대폭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고, 소매판매는 자동차·부품(-1.3%)의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보잉사의 737 항공기 생산 중단과 GM의 파업 여파로 2009.6월(46.3)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소비자신뢰지수는 미래 기대지수의 하락 영향(100.3 → 97.4)으로 2개월 만에 다시 하락
- 제조업 일자리 수는 전월과 달리 1.2만명 감소하고, 실업률이 전월 수준(3.5%)을 유지한 가운데 경기선행지수도 전월과 달리 하락세로 전환
- 지난해 4분기중 생산 감소 전환과 소비 둔화 지속, 체감지표들의 약세 지속 등 영향으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떨어지면서 2% 하회 예상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	2.0 (2.3)	2.1 (2.0)	-					
산업생산	0.8	-0.6	0.3	-0.1	0.8	-0.5	-0.5	0.8	-0.3
(IT 생산)	5.0	(-0.2)	(2.9)	(1.8)	(1.9)	(-0.1)	(-0.1)	(1.4)	(1.1)
내구재수주	-	-3.5	2.1	-	0.2	-1.5	0.2	-2.1	-
소매판매	3.6	1.9	1.4	0.5	0.6	-0.4	0.3	0.3	0.3
소비자물가	1.8	0.7	0.4	0.6	0.1	0.0	0.4	0.3	0.2
실업률(%)	3.7	3.6	3.6	3.5	3.7	3.5	3.6	3.5	3.5
무역수지(10억US\$)	-	-159.1	-157.4	-	-53.5	-51.1	-46.9	-43.1	-
ISM 제조업지수 ¹⁾	51.2	52.2	49.4	47.9	49.1	47.8	48.3	48.1	47.2
소비자신뢰지수 ²⁾	128.2	128.3	132.1	126.5	134.2	126.3	126.1	126.8	126.5
경기선행지수 ³⁾	111.6	111.7	111.8	111.4	111.8	111.6	111.4	111.5	111.2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11월 내수지표 혼조, BOJ 올해 제로 수준의 미미한 성장 예상

- 11월 생산 감소 지속과 소비·수주 증가 전환 등 실물지표들의 부문간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4개월 연속)가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 일본은행(BOJ)은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19년도 0.8% → '20년도 0.9%)하면서도 제로 수준의 미미한 성장을 전망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GDP)	0.3	0.6	0.5	0.4					
광공업생산	1.0	-2.5	0.7	-0.5	1.3	-1.2	1.7	-4.5	-1.0
민간기계수주	5.1	-3.2	7.5	-3.5	-6.6	-2.4	-2.9	-6.0	18.0
소매판매	1.7	-1.3	0.4	3.2	-2.3	4.6	7.2	-14.2	4.5
소비자물가	1.0	0.1	0.1	0.1	0.1	0.0	0.0	0.0	0.2
실업률(%)	2.4	2.4	2.4	2.3	2.2	2.2	2.4	2.4	2.2
무역수지(10억엔)	-1,225	-563	-329	-523	-252	-146	-128	13	-85
경기선행지수 ¹⁾	99.9	96.3	94.7	92.5	93.6	92.0	91.9	91.6	90.8

자료 :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12월 실물지표 반등, 4분기 성장률 6.0%, 연간 6.1% 성장률

- 지난해 12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지표들이 전월 수준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수출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0%, 연간 전체로 6.1% 성장률 기록. 中 인민은행은 연초 기준을 인하(0.5%p)와 유동성 공급 확대(3차례) 등 경기 부양 조치를 단행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9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GDP)	6.1	6.2	6.0	6.0					
산업생산	5.7	5.6	5.0	5.9	4.4	5.8	4.7	6.2	6.9
고정투자(누계기준)	5.4	5.8	5.4	5.4	5.5	5.4	5.2	5.2	5.4
소매판매	8.0	8.5	7.6	7.7	7.5	7.8	7.2	8.0	8.0
소비자물가	2.9	2.6	2.9	2.8	2.8	3.0	3.8	4.5	4.5
수출(달러화기준)	0.5	-1.0	-0.4	2.0	-1.0	-3.2	-0.9	-1.1	7.9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11월 경제지표 반등, ECB 현 통화정책 전략 재검토 시사

- 11월중 역내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세를 나타내고, 경기체감지수가 3개월 만에 상승하면서 단기적인 경기 반등성이 대두. 유럽중앙은행(ECB)은 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통화정책 전략의 재검토를 시사(1.23일)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GDP)	1.8	0.4	0.2	0.2						
산업생산	0.9	0.4	-0.7	-0.8	-0.4	0.6	0.0	-0.9	0.2	
소매판매	1.6	0.9	0.6	0.5	-0.5	0.7	-0.3	-0.3	1.0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8	1.4	1.4	1.0	1.0	1.0	0.8	0.7	1.0	
무역수지(10억유로)	193.4	53.3	51.7	55.6	17.0	20.0	18.7	24.0	19.2	
경기체감지수 ¹⁾	111.2	106.0	104.1	102.5	102.7	103.1	101.7	100.8	101.2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엔화 등 안전통화 강세·유가 하락 전환

- 연초 IMF 등 국제 기관들의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도 미·중 무역합의 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엔화 등 안전통화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가 확산되면서 강세로 전환
- 유가는 연초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로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추가 하락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19										2020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8일	
엔/달러	111.42	108.29	107.85	108.78	106.28	108.08	108.03	109.49	108.61	109.15	
달러/유로	1.1215	1.1169	1.1373	1.1076	1.0982	1.0899	1.1152	1.1018	1.1213	1.1022	
미 국채 (10년만기)	2.50	2.12	2.01	2.01	1.50	1.66	1.69	1.78	1.92	1.66	
WTI유	63.9	53.5	58.5	58.6	55.1	54.1	54.2	55.2	61.1	53.5	
두바이유	72.1	63.2	64.8	63.6	59.6	59.9	59.3	62.7	65.4	57.9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4분기 실질GDP 전기비 1.2% 성장, 2019년 성장률 2.0%

○ 지난해 4분기 실질GDP는 수출 감소(전기비 -0.1%)에도 민간소비(0.7%)와 건설투자(6.3%), 설비투자(1.5%) 등의 동반 증가세로 전기비 1.2% 성장

- 지난 2019년중 정부소비가 더욱 확대(2018년 5.6% → 2019년 6.5%)된 반면, 설비투자(-2.4% → -8.1%)와 건설투자(-4.3% → -3.3%)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증가세도 둔화(2.8% → 1.9%)되면서 2.0% 성장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8	2019	2019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GDP성장률	2.7*	2.0**	2.0* (1.0*)	2.0* (0.4*)	2.2** (1.2**)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8*	1.9**	2.0* (0.7*)	1.8* (0.2*)	1.7** (0.7**)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2.4*	-8.1**	-7.0* (3.2*)	-2.6* (0.6*)	-4.2** (1.5**)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4.3*	-3.3**	-3.5* (1.4*)	-3.7* (-6.0*)	0.5** (6.3**)	-	-	-	-
전산업생산지수	1.4*	-	0.4 (0.5)	0.5* (1.1*)	-	0.0 (0.2)	0.5* (-0.4*)	-0.2* (0.0*)	1.2* (0.4*)
광공업생산지수	1.3*	-	-0.7 (1.4)	-0.7* (2.0*)	-	-3.3 (-1.8)	0.7 (2.3)	-2.1* (-1.6*)	-0.3* (-0.5*)
제조업생산지수	1.2*	-	-0.8 (1.6)	-0.6* (1.9*)	-	-3.3 (-2.0)	0.5 (2.4)	-2.0* (-1.3*)	-0.1* (-0.6*)
서비스업생산지수	2.1*	-	1.4 (0.0)	1.6* (0.8*)	-	2.4 (1.1)	0.9 (-1.4)	0.8* (0.5*)	2.5* (1.4*)
소매판매액지수	4.2*	-	2.0 (1.0)	2.3* (0.2*)	-	4.1 (3.9)	3.0 (-2.3)	2.0* (-0.4*)	3.7* (3.0*)
설비투자지수	-3.7*	-	-8.7 (1.2)	-3.7* (1.2*)	-	-4.0 (0.5)	-2.4 (3.0)	-3.6* (-0.7*)	0.0* (1.1*)
건설기성액	-5.2*	-	-6.4 (-1.8)	-7.9* (-4.3*)	-	-7.4 (0.9)	-8.1 (-3.4)	-3.7* (2.6*)	-4.7* (-1.8*)
동행종합지수(2015=100)	109.4*	-	110.4	111.1*	-	111.1	111.3*	111.4*	111.5*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5*	-	99.4	99.4*	-	99.5	99.5*	99.4*	99.3*
선행종합지수(2015=100)	112.8*	-	114.6	115.0*	-	114.9	115.4*	116.1*	116.9*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0.2*	-	98.9	98.4*	-	98.4	98.5*	98.8*	99.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지난 1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에서 전월비 감소한 반면에,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비 0.4% 증가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월비 9.3%)가 큰 폭 증가함에도 자동차(-7.5%)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전월비 0.5%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3.0%)와 금융·보험(2.1%)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1.4% 증가
 - 소매판매는 내구재(전월비 3.4%)를 비롯해서 준내구재(5.6%)와 비내구재(1.9%) 등의 판매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비 3.0% 증가세로 전환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전월비 -0.3%)가 소폭 감소함에도 운송장비 투자(4.6%)가 상당 폭 증가하면서 전월비 1.1% 증가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 공사 실적(-2.9%)이 감소한 여파로 전월비 1.8% 감소

□ 물가 : 12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3% 상승, 전년동월비 0.7% 상승

- 12월 소비자물가는 오락·문화(-0.7%)와 통신(-0.1%) 등에서 하락한 반면에,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1.0%)와 교통(0.4%), 주택·수도·전기·연료(0.2%) 등에서는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2% 상승(전년동월비 0.7%)
- 12월 생산자물가는 서비스에서 전월에 이어 보험세(전월비 0.0%)를 보인 가운데 농림수산물(4.0%)을 비롯해 공산품(0.2%)과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0.5%) 등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전월비 0.3% 상승(전년동월비 0.7%)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1.5	0.4	0.5 (-0.4)	0.7 (0.4)	0.0 (-0.1)	0.3 (0.3)	0.0 (0.2)	-0.4 (0.4)	0.0 (0.2)	0.2 (-0.6)	0.7 (0.2)
근원물가	1.2	0.9	1.1 (0.4)	0.9 (0.3)	0.8 (-0.1)	0.7 (0.1)	0.9 (0.1)	0.6 (0.0)	0.8 (0.2)	0.6 (-0.3)	0.7 (0.1)
생산자물가	1.9	0.0	0.3 (-0.5)	0.4 (0.5)	-0.6 (0.0)	0.0 (-0.1)	-0.6 (0.2)	-0.8 (0.1)	-0.7 (-0.2)	-0.1 (-0.1)	0.7 (0.3)
근원물가	1.6	0.1	0.3 (-0.2)	0.3 (0.4)	-0.2 (0.0)	0.0 (-0.2)	-0.2 (0.1)	-0.3 (-0.1)	-0.4 (-0.1)	-0.1 (-0.2)	0.4 (0.1)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2월 기업대출 감소·가계대출 확대

- 1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전월보다 감소하면서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
(19.11월 +5.9조원 → 19.12월 -6.2조원, 대기업 -2.2조원, 중소기업 -3.9조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연말 기업들의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과 은행들의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대출이 감소 전환
- CP도 기업들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 등의 영향으로 순상환
(19.11월 +0.7조원 → 19.12.1~20일 -3.1조원)
- 회사채는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순상환 기조가 지속
(19.11월 -0.8조원 → 19.12월 -0.6조원)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약간 축소
(19.11월 +1.0조원 → 19.12월 +0.7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12월말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 중	10월	11월	12월	잔액
■ 은행 원화대출	38.1	-7.4	42.7	-6.8	44.9	7.5	5.9	-6.2	869.0
(대 기 업)	-3.5	-5.0	5.0	-2.3	-2.4	1.1	0.8	-2.2	152.3
(중소기업)	41.6	-2.4	37.6	-4.4	47.3	6.3	5.1	-3.9	716.7
<개인사업자>	27.8	1.5	25.0	0.3	24.7	2.8	2.6	0.8	338.5
■ 회사채 순발행	-3.5	-1.1	5.2	-0.8	15.8	3.6	-0.8	-0.6	..
■ CP 순발행	2.3	-0.9	0.8	-2.1	-1.3	-0.4	0.7	-3.1	17.0
■ 주식발행	13.9	1.7	10.1	0.9	6.3	0.5	1.0	0.7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12월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비 증가세가 지속되는 양상
(19.11월 +7.0조원 → 19.12월 +7.2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 지속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19.11월 +4.9조원 → 19.12월 +5.6조원)

- 기타대출도 주택자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월보다 증가
(19.11월 +2.1조원 → 19.12월 +1.6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12월말 잔액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중	10월	11월	12월	
은행 가계대출	58.9	4.1	60.8	5.4	60.7	7.2	7.0	7.2	888.3
■ 주택담보대출	37.2	2.8	37.8	4.9	45.6	4.6	4.9	5.6	653.6
■ 기타대출	21.6	1.3	22.6	0.5	15.1	2.5	2.1	1.6	233.6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월 중순(1.13~1.28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등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 완화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가 확산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 (1.13일 1.42% → 1.28일 1.35%, 0.07%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와 中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 조치 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로 동반 하락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면서 상승 전환 (1.13일, 1,156.0원 → 1.28일 1,176.7원, 3.2원 상승)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17	2018				2019			2020
		2/4	3/4	4/4	1/4	2/4	3/4	4/4	1.28일
국고채(3년)	2.08	2.12	2.01	1.82	1.69	1.47	1.30	1.36	1.35
회사채(3년, AA-)	2.63	2.77	2.45	2.29	2.16	1.97	1.80	1.94	1.94
CD(91일)	1.64	1.65	1.65	1.93	1.90	1.78	1.55	1.53	1.46
CP(91일)	1.79	1.82	1.82	1.97	1.98	1.92	1.72	1.69	1.69
원/달러	1,088.2	1,114.5	1,109.3	1,115.7	1,135.1	1,154.7	1,196.2	1,156.4	1,176.7
원/100엔	966.5	1,014.8	981.2	1,013.2	1,028.2	1,073.4	1,113.4	1,063.5	1,071.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1월중 전년동월비 -0.1%, 전월비 -0.6%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전년동월비 30.9%)를 비롯해서 기타운송장비(9.8%)와 기계장비(3.0%) 등에서 상당 폭 증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15.6%)과 자동차(-11.2%) 등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1%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3.3%)에서 증가세가 확대되고, 중공업(0.8%)에서도 증가세를 회복한 반면, 경공업(-4.3%)에서는 감소세가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는 반도체(9.3%)와 석유정제(4.1%), 1차금속(1.8%) 등에서 증가한 반면, 통신·방송장비(-14.3%)와 자동차(-7.5%), 금속가공(-6.5%) 등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조업 전체 기준 0.6%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3.2)는 반도체와 식료품 등에서 상승세를 보인 반면, 기타운송장비와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0.9%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1.4%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6.3%로 전월비 0.7%포인트 상승,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감소폭(-2.6% → -1.3%,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이 축소되고, 재고 증가폭(6.3% → 3.1%) 역시 축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8%로 전월보다 1.5%p 하락

□ 서비스업생산 : 11월중 전년동월비 +2.5%, 전월비 +1.4%

- 서비스업생산은 운수·창고(전년동월비 -1.9%)와 도소매(-0.3%), 교육(-0.2%), 등에서 소폭 감소하고, 보건·사회복지(9.4%)와 금융보험(4.8%), 정보통신(6.3%), 부동산(6.7%)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2.5%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 보더라도 운수·창고(-0.7%)와 전문·과학·기술(-0.5%)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도소매(3.0%), 금융·보험(2.1%), 부동산(6.2%), 숙박·음식점(2.0%)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서비스업 전체 기준 1.4%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5.6% 증가, 전월비 기준 2.6%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7년)	2017	2018	2019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광 공 업 (원지수)	10,000	104.7	106.1	100.2	106.2	104.5	102.8	109.9	109.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4	1.3	-2.1	-0.7	-0.7	0.7	-2.1	-0.3	-0.5
제 조 업 (원지수)	9,340.4	104.6	105.9	98.9	106.6	104.6	103.3	110.8	109.3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2	1.2	-2.1	-0.8	-0.6	0.5	-2.0	-0.1	-0.6
섬 유	136.7	-3.1	-6.7	-9.0	-7.5	-3.7	-1.4	-7.0	-6.9	-3.7
화 학	831.5	3.5	2.3	-3.1	-6.1	-2.0	-1.5	-1.9	-1.2	-1.6
철 강	604.5	1.6	-3.0	-2.4	-2.1	-2.7	-2.0	-3.9	-4.2	2.9
반도체	1,218.3	10.9	20.2	5.8	7.9	8.3	9.7	11.7	30.9	9.3
컴퓨터, 주변장치	44.5	-10.2	-7.7	2.5	-6.8	-7.2	7.4	-8.5	-17.1	-6.5
통신, 방송장비	144.7	-9.7	-7.1	-16.4	-8.4	3.1	7.6	11.5	7.4	-14.3
의료, 정밀, 광학	186.1	19.1	15.1	-8.3	-11.5	-20.5	-22.2	-19.6	-8.5	2.6
기계, 장비	835.8	13.5	-2.9	-11.4	-6.8	-1.8	3.2	0.0	3.0	-0.8
자동차	1,066.4	-2.7	-1.4	2.5	1.7	-0.3	-2.7	-6.0	-11.2	-7.5
조 선	221.1	-29.2	-13.5	9.6	22.2	25.9	33.2	19.7	18.7	0.0
- 중 공 업	-	2.6	2.2	-2.0	-0.8	-0.5	0.8	-1.6	0.8	1.0
- 경 공 업	-	0.1	-3.1	-2.3	-0.9	-1.2	-1.2	-4.2	-4.3	-4.3
- 제조업ICT	-	7.1	11.3	-2.2	0.9	1.1	3.7	2.9	13.3	0.1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4.5	106.7	104.5	98.7	102.8	106.7	109.0	110.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9	2.1	1.1	1.4	1.6	0.9	0.8	2.5	1.4
도소매	211.3	0.7	1.5	-0.6	-0.1	0.4	-0.1	-1.5	-0.3	3.0
운수, 창고	90.3	1.6	2.1	1.2	-1.3	0.2	-0.7	-0.9	-1.9	-0.7
숙박 및 음식점	61.6	-1.9	-1.9	-1.3	-1.3	-2.6	-4.6	-0.5	-0.2	2.0
정보통신	79.9	1.6	1.4	3.0	3.9	3.2	3.2	6.6	6.3	0.2
금융 및 보험	140.9	5.1	5.8	1.0	1.1	3.9	1.4	-0.7	4.8	2.1
부동산	31.8	1.2	0.2	-2.9	-1.6	0.6	0.9	-1.1	6.7	6.2
전문, 과학 및 기술	71.0	-1.6	0.8	0.6	1.9	2.4	2.2	2.0	0.8	-0.5
사업시설관리 등	47.7	4.2	0.6	-0.2	3.0	3.2	3.7	3.1	4.4	1.2
교 육	106.0	0.0	0.1	-0.8	-0.9	-0.5	0.6	-0.2	-0.2	0.2
보건 및 사회복지	94.3	6.6	5.6	8.4	9.8	5.7	5.0	6.4	9.4	0.2
예술, 스포츠, 여가	21.7	0.2	-0.6	2.3	0.3	-0.9	-4.4	-0.1	5.9	8.1
협회, 수리, 개인	32.1	0.0	0.7	-2.2	-0.7	-2.6	-3.3	-1.8	0.4	1.5
수도, 하수, 폐기물	11.4	0.4	3.0	-1.8	-3.2	0.8	1.8	-0.4	0.9	-0.6
- ICT서비스업	-	-4.3	9.7	-1.1	-4.3	9.7	4.0	5.3	5.6	2.6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 용

□ 취업자 수 : 12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9% 증가

- 12월 전산업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전월보다 더욱 축소되고,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상승(1.2% → 1.9%, 2014.9월 이후 최고치)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폭 축소가 지속(전년동월비 -0.6% → -0.3%)
 -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전월과 달리 동반 확대(농림·어업 1.6% → 4.0%, SOC·기타서비스업 1.6% → 2.3%)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비 감소폭이 축소(-3.3% → -1.3%)된 모습이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0.1% → 0.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정보통신업(-1.2% → -3.1%), 금융및보험업(-3.9% → -3.6%),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3.1% → -1.7%) 등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6.3% → 8.6%)과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6.9% → 7.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2.7% → 4.9%)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상승(4.0% → 5.0%)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8%로 전월(3.6%)보다 상승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8	2019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산 업	26,822	27,123	27,256	27,382	27,393	27,358	27,404	27,509	27,515	27,514	
전년동기비	0.4	1.1	0.9	1.4	1.6	1.7	1.3	1.5	1.2	1.9	
농림·어업	4.8	4.1	1.2	3.9	3.1	3.7	4.2	3.9	1.6	4.0	
제 조 업	-1.2	-1.8	-1.4	-1.7	-0.9	-0.5	-2.5	-1.8	-0.6	-0.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0.5	1.6	1.4	1.8	2.0	2.0	1.9	2.1	1.6	2.3	
건 설 업	2.3	-0.7	0.0	0.0	-2.4	1.3	-1.9	-2.5	-3.3	-1.3	
도소매·음식숙박업	-1.9	0.0	0.3	0.5	0.3	0.9	0.3	0.8	-0.1	0.1	
전기·운수·통신·금융	3.3	0.2	0.3	-0.8	0.1	-1.4	-0.7	-0.7	0.5	0.6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0.7	3.5	2.7	3.9	4.6	4.0	4.5	4.7	4.0	5.0	
실업률 (계절조정, %)	3.8	3.8	4.0	3.5	3.6	3.1	3.4	3.5	3.6	3.8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2월 수출 5.2% 감소, 수입 0.7% 감소, 무역수지 흑자 20억 달러

○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2% 감소한 457억 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43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단가의 회복 지연, 선박 수출의 감소 전환 등 영향에도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합의 기대감과 대중국 수출 회복, 연말 쇼핑 시즌에 따른 IT품목의 호조 등에 힘입어 한 자릿수 감소율

- 수입은 원유와 석유제품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입액이 한 자릿수 감소율로 축소된 데다, 그동안 부진세를 보인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도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월비 0.7%의 감소율을 기록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67.5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0.6% 하락해 있고, 도입물량도 6.1% 감소하면서 금액 기준으로 6.7% 감소한 59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수출	5,737 (15.8)	6,049 (5.4)	5,423 (-10.3)	1,385 (-8.7)	1,348 (-12.3)	1,364 (-11.7)	447 (-11.8)	467 (-14.9)	440 (-14.4)	457 (-5.2)
수입	4,785 (17.8)	5,352 (11.9)	5,033 (-6.0)	1,288 (-3.3)	1,249 (-4.1)	1,258 (-9.7)	387 (-5.6)	414 (-14.6)	407 (-13.0)	437 (-0.7)
무역수지	952	697	391	97	98	106	59	53	33	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일반기계 · 철강 · 자동차 · 자동차부품 · 가전 수출 증가세로 전환

○ 반도체 : 낸드 단가의 완만한 상승과 신규 스마트폰 판매 호조 및 5G 서비스 본격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IT기기의 비수기 진입에 따른 D램 가격의 회복 지연과 수요 증가 부재 요인 등으로 인해 수출 감소 지속

- **자동차** : 전세계적인 자동차 수요 감소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부분 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에 대한 SUV 중심의 수출 호조 및 수출단가 상승세의 지속, EU 지역으로의 친환경차(전기차 등)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 **자동차부품** :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따른 대중국 조립용 부품 수출 감소와 국내 기업들의 유럽 시장 철수에 따른 관련 부품 수출 감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성차 기업들의 SUV 판매 호조와 신형 세단의 본격 출시 등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
- **선박류** : 최근에 선박 건조는 증가 추세이나, 전년대비 군함·플랜트 수출의 전무, 전년 12월 수출 호조(월별 최대)에 따른 기저효과, 2016~18년 초의 낮은 선가로 계약된 선박들의 본격 인도 등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디스플레이** : 중저가 스마트폰의 OLED 채용 확대와 TV용 OLED 단가 상승으로 OLED 수출이 소폭 증가한 반면, 중국의 패널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과 단가 하락으로 LCD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
- **무선통신기기** : 해외 기업들의 신형 휴대폰 생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부분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교체주기 연장 추세와 글로벌 휴대폰 시장 침체, 주요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
- **철 강** : 중국·미국 등 주요국들의 공급 확대와 전방산업(자동차·건설 등)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과 중남미 등의 지역으로의 수출선 다변화 노력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 **섬 유** :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의 섬유 수요가 일부 회복되면서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아세안 수출 부진과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체 섬유 수출은 소폭 감소
- **석유제품** :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에도 석유제품의 수요 회복 지연과 아시아 역내 신규 정제시설 가동에 따른 공급 증가 등으로 수출이 감소

- **석유화학** : 국제유가 상승과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 기대감 등으로 시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으나, 역내 NCC(나프타분해시설) 설비가동 증가 등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 정기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일반기계** : 미국내 신규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계산업 투자 회복과 낙후설비 교체에 따른 대중국 수출 회복, 카자흐스탄 석유·화학 생산시설 투자에 따른 화학기계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이 7개월 만에 증가
- **가 전** :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주요국 시장에서의 쇼핑행사 확대 및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평가 향상, 대형 냉장고 등 해외물량의 국내생산 전환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
- **컴퓨터** : PC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낸드(NAND) 공급 초과율 축소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과 데이터센터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SSD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자동차	3.8	-1.9	5.3	8.9	10.3	-1.4	3.9	-3.1	-1.4	0.3
자동차부품	-9.5	-0.1	-2.5	-7.2	-0.7	-4.5	1.9	-7.2	-9.4	4.0
선박류	23.1	-49.6	-5.1	49.2	39.1	-40.8	30.9	25.7	-62.1	-57.9
일반기계	11.4	10.2	-1.8	0.5	-4.5	-3.6	-1.7	-12.3	-1.8	4.2
철 강	20.0	-0.7	-8.5	-8.2	-17.6	-4.9	-9.4	-12.4	-8.9	7.7
석유화학	23.5	11.9	-14.8	-15.9	-16.9	-16.2	-18.5	-22.6	-19.0	-5.8
석유제품	32.0	32.3	-12.3	-13.0	-14.4	-16.2	-17.1	-26.8	-12.3	-6.7
섬 유	-0.5	2.5	-8.0	-8.5	-8.6	-7.7	-5.9	-6.9	-12.3	-3.6
가 전	-22.1	-18.3	-3.6	-2.3	-1.4	-4.3	0.3	-6.5	-6.9	1.1
무선통신기기	-25.5	-22.7	-17.6	-21.0	-17.0	-3.8	0.6	-6.7	-2.9	-0.5
컴퓨터	9.5	17.2	-20.6	-36.5	-26.2	21.5	-22.2	7.7	23.5	35.2
반도체	57.4	29.4	-25.9	-23.6	-30.3	-27.6	-31.6	-32.1	-30.8	-17.7
디스플레이	9.0	-9.9	-17.0	-13.8	-19.9	-21.1	-17.2	-22.5	-23.4	-16.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 록	중동 불안이 국제유가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	--------------------------

국제무역연구원(2020.1.15일)

□ 중동 불안 개요

- 핵합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 탈퇴 후 對이란 제재를 이어감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
- 미국-이란 갈등으로 중동 역내 긴장이 연초에 급격히 고조됐으나, 미국의 추가 군사적 대응 미시행 발표로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

□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동향 전망

- (최근 동향) 국제유가는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하반기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이란 갈등 고조로 연초 급등한 이후에 하락
- (향후 전망)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불식되었으나, 추가적인 갈등 가능성은 상존

□ 유가 상승의 세계경제 영향

- (원유 순수입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인도 등이 유가 상승에 따라 실질소득 감소, 생산비용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예상
- (원유 순수출국) 러시아와 사우디, 이란, 노르웨이 등은 실질소득 증가, 정부수입 증가, 재정수지 및 국제수지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

□ 중동 불안 및 유가 상승의 수출입 영향

- (대이란 교역) 2019.5월 對이란 경제 제재가 재개되고, 한국-이란 간 원화 결제 시스템이 동결되면서 대이란 교역과 해외 진출에 상당한 타격
 - 우리나라의 對이란 수출과 수입은 2018년부터 감소하여 2019.1~11월에도 각각 88.6%, 47.8% 감소했으나, 이미 저점을 찍어 향후 피해는 제한적
- (국제유가 상승의 파급 효과) 유가 상승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할 것으로 파악
 - ① 유가가 소폭 상승시 수출단가 상승과 산유국들의 재정 개선으로 인한 수출액 증가가 예상(원유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도 증가)

- 주요 업종별로는 유가와외의 상관관계가 높은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제품, 선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시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

〈 주요 수출 품목별 유가 탄력성과 수출 비중 〉

		유가 탄력성	수출 비중 (2018년)	유가 상승시 수출증가 사유
유가와외의 상관관계 높은 업종 (수출 비중: 52.2%)	석유제품	1.02	7.7%	수출단가 상승 등
	석유화학	0.45	8.3%	
	철강제품	0.43	5.6%	에너지철강재(유정용 강관·송유관) 및 설비수요 증가 등
	디스플레이	0.33	4.1%	산유국 경기 상승 등
	선박	0.29	3.5%	해양플랜트 발주 증가 등
	가전	0.27	1.2%	산유국 경기상승 등 (다만 비산유국 시장 축소 등 수출감소 요인도 존재)
	자동차	0.26	6.8%	
	일반기계	0.26	8.9%	
	섬유류	0.21	2.3%	
	자동차부품	0.16	3.8%	
유가와외의 상관관계 낮은 업종 (수출 비중: 25.5%)	컴퓨터	0.03	1.8%	생산비중 석유비중 낮음
	반도체	-0.11	20.9%	
	무선통신기기	-0.17	2.8%	

- ② 배럴당 80달러 이상의 고유가 지속시에는 국내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와 해외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내 소비 여력 축소에 따른 수입 부담 가중 예상

□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피해는 제한적) 대이란 교역은 이미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 수세에 몰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무력을 행사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對중동 수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

○ (대응 전략 필요성) 중동 현지 동향 및 전개 양상을 상시 모니터링

- 중동 불안에 따른 실물경제 동향 및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27)	(1.28)	(1.29)	(1.30)	(1.31)
	 12월 내구재수주(잠)  1월 소비자신뢰지수  연준 FOMC-1.19일	 1월 소비자신뢰지수	 12월 무역수지(수)  1월 경제제감지수  12월 실업률  19.4분기 실질GDP (예비치)  1월 가업경기실사지수	 12월 소매판매(잠)  12월 산업생산(잠)  12월 실업률  1월 소비자물가(예)  19.4분기 실질GDP (예비치)  12월 개인소비  12월 산업활동동향 (2.1)  1월 수출입통계
(2.3)	(2.4)	(2.5)	(2.6)	(2.7)
 1월 ISM 제조업지수	 1월 소비자물가	 12월 소매판매  1월 ISM 비제조업지수  12월 무역수지		 12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1월 고용보고서
(2.10)	(2.11)	(2.12)	(2.13)	(2.14)
 1월 소비자물가  1월 수출입통계		 12월 산업생산  1월 고용동향	 1월 소비자물가	 12월 소매판매(수)  12월 수출입통계  19.4분기 실질GDP (수정치)  1월 산업생산  1월 소매판매
(2.17)	(2.18)	(2.19)	(2.20)	(2.21)
 12월 산업생산(수)  19.4분기 실질GDP (잠정치)		 1월 무역수지(잠)  12월 기계수주	 1월 경기선행지수  1월 생산자물가	 1월 소비자물가  1월 소비자물가(수)